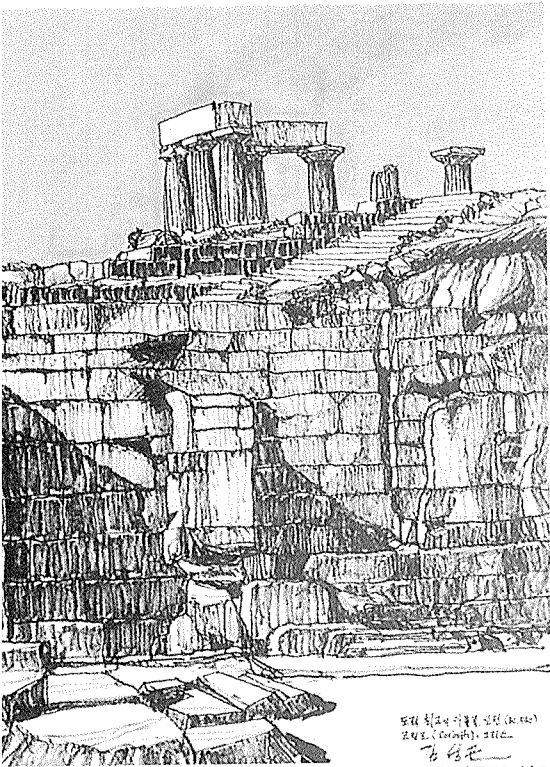


실크로드 건축기행

Architectural Ruins of the Silk Road Regions

金晟坤/동아대학교 교수, 공학박사

by Kim, Sung-Kon



코린토 도리최고의 아폴론 신전

1. 서론

인간이란 그들 나름대로의 집단이 우연히 서로 만나거나 또는 한데 엮히는 속에 여러 가지의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내었다. 비단이나 종이와 그렇고 유리나 청동주조의 기술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인 신앙 또는 기술의 경우도 결코 격리되어 외로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마치 높은 곳의 물이 아래로 흐르듯 그 속에 응축된 힘에 따라 다른 곳으로 널리 퍼져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이나 기술이 흘렀던 주요한 통로가 실크로드(Silk road)가 아니었던가 싶다.

오랜 실크로드의 역사속에 음식의 기호품을 위시해서 향료, 비단, 보석등이 동서교역의 주요한 대상이었고 또한 예술이나 종교등도 전파되는 통로였다. 그런데 건축에 있어선 중국에서 지중해까지 하나로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다. 오리엔트로 표현되는 서방아시아와 유럽은 지중해란 공유영역을 통해 깊숙한 관계가 있었으나 서방아시아와 동부아시아인 중국과는 별다른 연계성이 없다는 점이 특이하다.

유럽문명의 원류가 되는 그리스는 고대 이집트에서 도릭의 양식과 열주형식이 전래되고 로마는 동방으로부터 아치구조를 전수받고 다시 펜덴티브(pendentive)구조에 의한 돔 구성법도 이어받아 위대한 로마 건축을 대성시킬 수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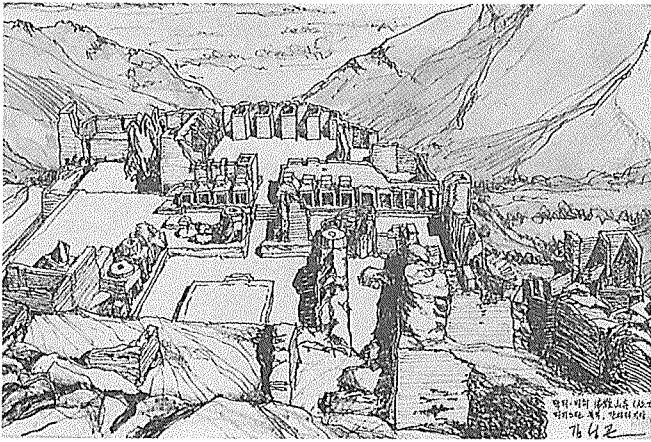
그리고 훌륭한 건축적 성공을 거둔 사산 페르시아 건축은 이슬람의 건축적 지주가 되면서 이슬람의 세력확장과 더불어 지중해 세계는 물론이고 동쪽으로는 인도에 이르고 한편으로는 중앙아시아와 중국의 서역까지 뻗었으나 그 이상의 전진은 없었다. 이것은 중화사상(中華思想)이 강한 중국으로선 중국이외의 나라나 민족을 대개 미개한 야만으로 취급하고 멸시하였기에 건축은 수용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직접적인 것은 아니나 중국의 일반건축에서 초기의 목조양식에서 벽돌조로 전환한 것이나 주거건물에서 가운데에 마당을 두는 사합원(四合院)이나 천정(天井)으로 표현되는 중정을 둔 것 등은 오리엔트의 영향이 아닌가 싶다.

2. 실크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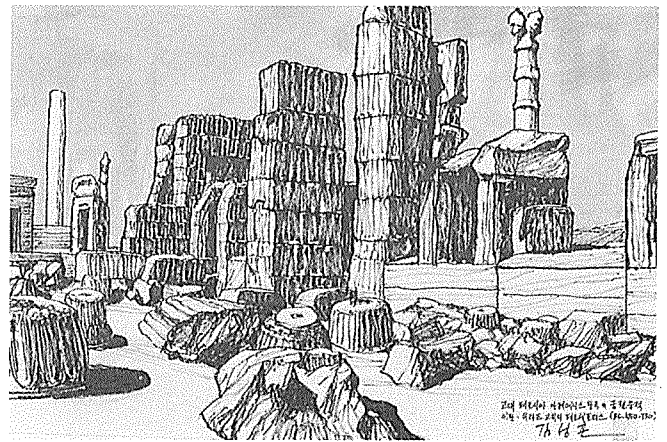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Herodotos, B.C 484~425)가 쓴 역사란 책에는 기원전 7세기에 흑해북쪽에 살고 있던 기마민족인 스키타이족에 의한 고도의 금속문명이 중국의 천산(天山)기슭의 사카족에게 까지 전파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오래전부터 유라시아대륙을 횡단하는 고대교역로(古代交易路)가 있었던 것이다. 이는 현재의 중국에서 서역(西域)을 넘어 중앙아시아와 페르시아 및 지중해로 이어지는 큰 통로이며 또 하나의 통로는 시기는 좀 다르지만 지금의 인도에서 페르시아를 지나 지중해로 잇는 통로도 포함된다.

근래에 널리 통용되는 실크-로드(Silk road)란 말은 19세기말(1877년) 독일의 지리학자 리히트호펜(F. Richthofen)의 저서 「중국」이란 책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중국의 중원에서 서역에 이르는 길을 비단이 운반되었던 사연으로 비단길(Seidenstrassen : 독일어)이라고 표현한 데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실크-로드란 말은 동서양의 고대세계를 잇는 통로란 뜻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중국에선 쓰촨어지루(絲綢之路)로 통용되고 있다.

오아시스의 길 실크-로드의 활발한 동서교역은 중국의 한무제가 서역의 흉노를 평정하던 기원전 150년대 부터 인것 같다. 이때부터 후한(後漢 : AD 25~AD 220)이 멸망한 때까지의 약 350년간이 1차 번영기(B.C 150~AD 200)가 된다. 이때 파미르고원 서편의 중앙아시아는 발티아 제국(Parthia : B.C 248~AD 226)이 있었고 유럽은



탁티-바히 불교 산사의 전경



페르세폴리스의 고대 페르시아 궁궐 유적

지중해세계를 장악한 로마 제국(Roma : B.C 509~A.D 330)이 있었다. 이 시기에 기록된 내왕 인사로는 전한의 장건(張騫 : B.C 138~126)은 월지국에 다녀왔고 후한의 감영(甘英 : A.D 97년 출발)은 로마로 파견되었으나 지중해 연안(현재의 시리아)에 이르렀고 A.D 166년에는 로마의 아우레리우스 황제(大秦王安敦)의 사절이 왔던 것이다. 특히 B.C 2년(A.D 67년 설도 있음)에는 불교도 이 길을 따라 서역(중국)으로 들어 왔던 것이다.

후한이 멸망하고 삼국(三國), 육조(六朝), 수(隋)등으로 이어지는 약 400년간(A.D 200~600)은 국내의 분쟁과 혼란으로 내왕이 침체된 공백기라 할 수 있다. 7세기에 들어 중국대륙을 통일한 당(唐 : 618~907)의 출현으로 서역통로가 다시 개통되었다.

실크-로드는 다시 활기를 찾고 약 300년간의 2차 번영기(A.D 600~900)를 맞게 되었다. 이 시기에 내왕했던 인물로는 현장법사(玄奘 : 629~645)가 인도여행을 마치고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를 펴냈다. 651년에는 이슬람(Islam)사절이 들어옴에 따라 이슬람교가 전파되고 서역문화의 문화유입이 활발했으며, 716년과 720년에는 인도의 불승(佛僧)이 장안에 들어왔다. 그리고 751년에는 다라스 전투에서 고선지(高仙芝)의 군대가 이슬람군에게 패배 당할 때 포로가 된 제지(製紙) 기술자가 이슬람 세계로 넘어가 종이 제조법이 유럽에까지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

당나라가 멸망하고 국내는 다시 분열되고 오대십국(五代十國),

북송(北宋), 남송(南宋), 금(金)왕조로 이어지는 약 350년간의 침체기를 맞았다. 13세기에 들면서 몽골족의 대두로 중국대륙과 서방아시아 전역을 그들의 영토가 된 사상 최대의 대제국이 건설되고 약 200년간(A.D 1250~1450)은 실크-로드의 안전이 보장되고 또한 동서교역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이다. (3차 안전기) 이 시기는 원(元 : 1271~1368)이 포함된 몽골제국(1206~1391)과 명(明 : 1368~1644)의 초기가 해당된다. 1246년에는 로마교황의 사절이 들어오면서 가톨릭교가 전파되기 시작했으며 뒤이어 베네치아인 마르코-폴로(Marco Polo : 1271~95)가 대도(大都 : 지금의 북경)에 다녀가서 동방견문록(東方見聞錄)을 펴내면서 아시아의 여러 모습이 유럽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15세기에 들면서 동북아시아에서 몽골의 세력이 먼저 소멸되고 중앙아시아의 티무르제국의 황금기가 종료되었다. 유럽에선 1100여년의 역사를 지닌 비잔틴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Constantinopolis : 지금의 Istanbul)까지 1453년에는 오스만-터키에게 함락되고부터는 실크-로드는 쇠퇴해 버리고 말았다. 뒤이어 1498년 바스코-다마의 인도양 항로의 발견에 의해 더 이상 고된 육로보다 경제적인 해로에 의한 교역이 시작되고 말았다.

3. 동서의 역사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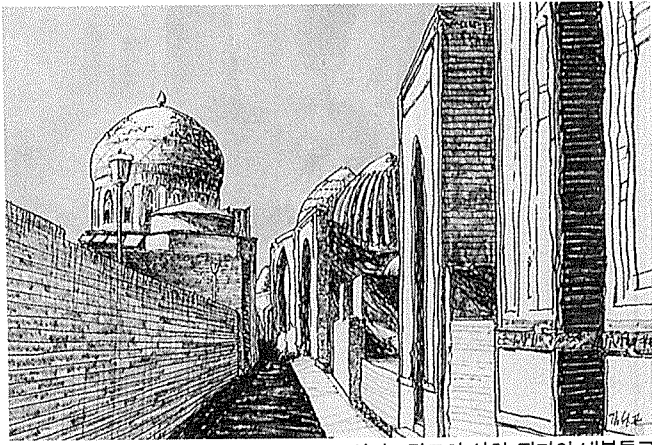
우리에게 알려진 세계사는 흔히 동양사와 서양사를 합쳐버린듯 그런

체제로 서술된 것이 태반이다. 이런 체제로 시작된 세계사는 동양과 서양을 대등한 입장에서 비교하고 해석하다가 중국에는 유럽이란 서양우위의 결론으로 이어진다. 서양이란 유럽대륙은 기독교 문화권으로서 일원세계(一元世界)로 나름대로 정리될 수 있다. 그러나 동양이란 아시아 대륙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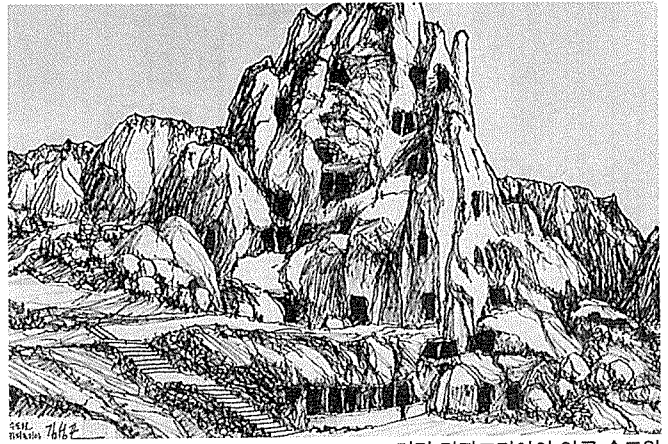
다원세계(多元世界)이다. 이렇게 본질적으로 다른 세계를 피상적으로 단순히 어떤 시각에서 비교해 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아시아와 유럽은 그 면적에 있어서도 4 : 1이고 인구도 같은 수준이다. 특히 기원전 1500년을 기준으로 그의 역사를 보면 아시아의 황하문명, 인더스문명 및 메소포타미아문명도 이미 성숙기에 들어가나 유럽은 아직 역사의 장에도 나타나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스나 로마세계가 역사에 나타난것은 이보다 1000년이 늦은 기원전 500년경이다. 그리고 인류문명의 4대 발상지중 3개가 아시아에 있으나 유럽에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유럽의 역사는 비유럽지역에서 시작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이다.

다원세계인 아시아를 하나로 정의하고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전되고 있다. 풍토적인 시각에서 아시아를 습윤아시아(Wet Asia)와 건조아시아(Dry Asia)로 대별하면서 동양(東洋 : 동부아시아)과 중앙(中洋 : 서부아시아)과의 민족문화권으로 양분시킨 학설도 있다. 이것은 아시아대륙을 중국문화를 중심한 동양과 이슬람문화권의



사마르칸트의 사히-진다의 내부통로



터키 카파도키아의 암굴 수도원

중양으로 이원화시킨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인도아(印度亞)대륙이 송두리째 제외된 모순이 있다.

7세기 당(唐)의 구도승 현장(玄奘)은 인도 유학중 인도의 지리관(地理觀)을 터득하고 돌아왔다. 그의 저서 대당서역기에는 인간세계(아시아대륙)를 동서남북의 4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동쪽은 인구(人主)의 나라 중국, 남쪽은 상주(象主)의 나라 인도, 서쪽은 보주(寶主)의 나라 페르시아, 북쪽은 마주(馬主)의 나라 흉노(匈奴)로 나누고 있다. 이러한 지역구분은 현재의 시각에서도 매우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북쪽 마주의 나라는 유목민의 활동무대이며 근세에 들어오면서 문화권으로서의 비중이 쇠퇴되었기에 이를 제외한 3개권 제안의 당위성이 있다.

이러한 아시아의 3개권은 같은 대륙안에서 서로 연계되어 있으나 각각 이질적인 것이 역사나 문화에 있어서 명확히 드러난다. 이는 지정학적으로 권역의 경계지대가 험준한 산악 아니면 사막으로 격리되어 있는 것이 그의 첫째 원인이다. 따라서 상호교류의 어려움이 심각했던 것이고 험난한 실크로드의 유일한 통로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3개권은 동방아시아권, 남방아시아권 및 서방아시아권이 된다. 동방아시아권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농경문화권이고 불교권이며, 남방아시아권은 인도를 중심으로 한 농경문화권이고 힌두교 숭상지역이다. 서방아시아권은 페르시아(현재의 이란)를 중심한 오아시스문화권이고 이슬람교권이다. 동방과 남방아시아권은 습윤(濕潤)지대로서

같은 농경문화권이지만 민족문화권에서는 남방아시아권은 건조(乾燥)지대인 서방아시아의 오아시스문화권과 연결된다.

동양과 서양(유럽문화권)과의 연결은 소아시아와 지중해였다. 지중해는 동양과 서양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대륙도 연결되는 손쉽고 편리한 통로였다. 사람과 물자의 교류만이 아니고 건축에서도 그의 구조기술이나 장식수법도 전달되었다. 고대사회에서 서양은 서방아시아를 통한 동방이나 남방아시아로부터 내륙 실크로드에 의한 문물의 교류가 빈번했던 것이다. 이 시기에는 동서교류의 경로이고 중계지로서 서방아시아는 활기를 띠면서 다양한 문화와 접하게 되었다. 다양한 문화와 접촉하면서 새로운 문화의 창출로 이어졌다. 이 때의 서방아시아의 이슬람문화권은 황금기를 맞으면서 동서양의 역사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드높은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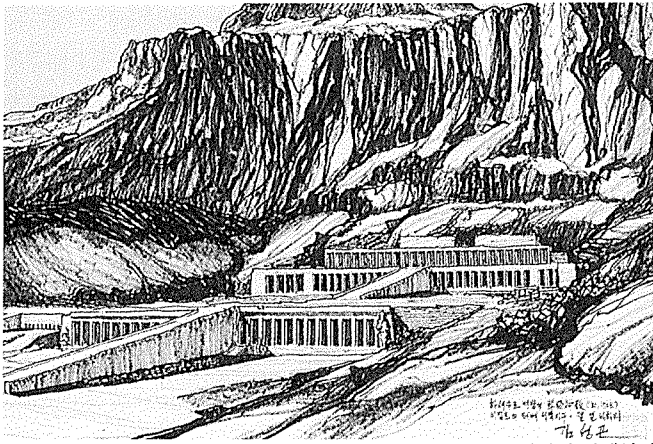
그러나 15세기에 들면서 동방항로의 개척으로 서양은 서방아시아를 거치지 않고 뱃길따라 남방아시아(인도)나 동방아시아(중국)까지 진출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아시아의 내륙지향적이던 도시입지가 점차 해안도시의 탄생으로 이어지면서 활기를 띄게 되었다. 안전하고 대량수송이 가능한 바다의 통로개설은 실크로드의 소멸과 서방 아시아의 몰락을 가져왔던 것이다. 이것은 서양에선 가장 가까웠던 이웃이 가장 먼 남남이 되어 버린 것이다.

창세기(創世期)이래 동양과 서양은 유라시아 대륙에 함께 살아왔다. 이 대륙은 거대한 것으로서 동쪽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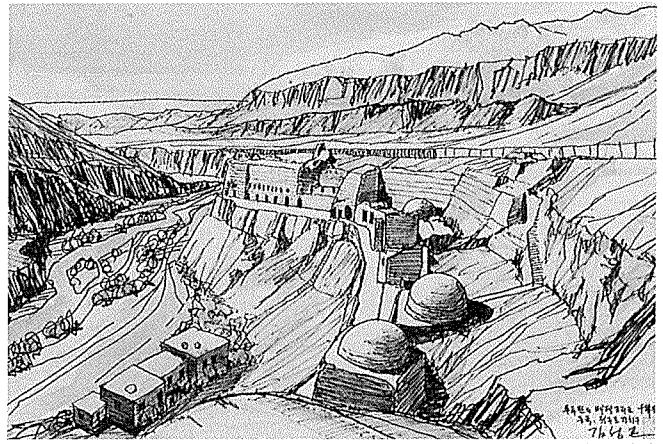
아침일때 서쪽은 한밤중이다. 한쪽이 밝을 때 다른쪽은 어둠속이다. 또한 한쪽이 황금기일 때 다른 쪽은 암흑기였다. 함께 밝거나 함께 황금기를 맞은 적은 없었다. 한쪽이 기(氣)를 얻을 때 다른쪽은 멸(滅)이 닥치는 것처럼 짓궂은 역사가 지나는 고저현상(高低現象)의 속성때문인지도 모른다.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민족과 국가이다. 각 민족에게 뿌리가 있는 것과 같이 국토에도 뿌리가 있다. 올바른 뿌리찾기는 참된 역사를 밝히는 요체가 된다. 근래와서 유럽은 모든 면에서 뿌리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작게는 가문의 계보 찾기에서부터 크게는 국가나 민족, 그리고 문화의 맥락에 이르기까지 활발하다. 유럽사람들은 그들의 민족이나 문화에 대한 뿌리찾기에서 그리스를 그들의 뿌리로 귀착시켰다. 그리고 그리스에 대해서는 분에 넘치는 승화로 그들 스스로의 위대함을 과시하려 든다. 그래서 그리스에서 발굴된 볼품 없는 항아리 하나도 빠짐없이 그 무슨 높다란 예술성을 드높이며 해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심상의 편견은 동서양 연구에 커다란 혼란을 가중시킨다. 역사가 아닌 왜곡된 자료만의 연구로서 편견에 가득찬 왜곡된 결과만 기대되는 것이다. 이러한 편견이 깔려있기에 서슴없이 잘라내기도 하고 입을 다물어 버린 것은 참으로 못 마땅하다. 비뚤어진 것을 안 이상 바로잡아야 한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든다고 해도 왜곡된 기록이 아닌 참된 역사를 밝혀야 될 과제가 우리앞에 놓여져 있는 것 같다. 여기에는 세계관적인



델·엘·바하리의 하서스트 여왕의 장제신전



투르판의 베제크리크 전경

입장에서 역사를 보고 연구하는 길밖에 없다고 본다.

4. 유럽건축의 원류

민족이나 문화의 근원적인 뿌리를 무시한 채, 근세에 들어와서 유럽의 역사가들이 지중해를 유럽의 전유물로 한 연장선상에 그리스를 올려놓고 고대의 찬란했던 동방세계인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와 대립시키는 것은 큰 잘못이다. 지중해는 자고로부터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의 삼대륙과 연관짓는 역사영역이었다.

그리스는 민족이나 언어계통이 다른 고대 미노아(크레타) 문명을 그리스와 연결시킴으로써 일찍부터 고대 동방제국과 대등한 관계로 이어나가는 역할을 부리고 있다. 유럽문명의 원천으로 대단히 주요한 입지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스는 동부 지중해의 북녘에 있는 작은 나라의 하나일 뿐이다. 그리스가 처음으로 역사의 장에 등장된 것은 기원전 14세기의 일이고 이때는 이미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리아나 고 바빌로니아, 소아시아의 히타이트와 지중해의 크레타도 소멸되고 난 다음의 시기이다.

그리스 문명의 원류는 크레타이다. 기원전 2000년경 부터 약 500년간 미노아 문명은 황금기를 맞았던 것이며 예술이나 건축에 비범한 재능이 넘쳤다. 일찍이 그리스 본토까지 그들의 손이 미쳤으며 그리스는 여기서 부터 예술활동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크레타를 정복하고 지중해 활동을 승계받은 뒤 소아시아나 이집트와의

교역이 시작되었다. 교역과 더불어 고대이집트에선 도릭(Doric)양식과 열주(列柱)형식이 도입되고 소아시아선 이오닉(Ionic)양식을 도입시켜 그리스 건축의 기초를 다졌다. 이집트의 테베의 나일강 서안의 하서스트 여왕의 장제신전 전면에 있는 열주형식의 주랑(柱廊)과 돌기둥은 그리스의 도릭양식의 원형이다. 주두(柱頭)나 주신(柱身)도 같고 초반이 없는 것 까지도 같다. 이 장제신전의 건립연도는 BC 1501년이다. 소아시아(현 터어키)의 옛 히타이트의 수도 보가스콤키(Boghasköi) 궁전의 동편 암벽에 투드라히아 4세의 조각물이 있다. 여기에 이오닉 양식의 기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고대 히타이트에서 이미 이오닉의 기둥을 썼음을 반증하고 있다. (BC 15세기경의 조각)

그리스보다 약간 시대를 뒤로 하고 있는 로마에 있어서 그의 선주민(先住民)이었던 에트루스칸(Etruscan)은 동방의 소아시아(에게연안의 트로이 지방)에서 기원전 10세기경에 이주해온 민족으로 추정된다. 그들은 이미 동방에서 아치(arch)나 볼트(vault)의 구조기법을 습득하였던 것으로 이 기법은 로마인에게 전수되고 이 구조는 로마건축의 기초가 되었다. 아치나 돔구조에 의한 거대한 건조물의 구축이 가능했던 것이며 이는 또한 대로마 건설에 크게 기여한 셈이다. 일설에 따르면 기원전 1250년경 트로이 함락시 아이네이아라는 왕족이 탈출에 성공하여 해협을 건너 마케도니아로해서 에게해의 크레타섬을 지나 시시리섬으로 가서

이탈리아로 갔다고 한다. 그의 자손이 바로 로마건축의 아버지인 로무르스라고 한다.

이상과 같이 그리스나 로마도 그들의 주요한 줄기가 되는 건축요소는 동방에서 전래된 것이며 그들이 동방에 전파시킨 것은 작은 가지나 잎새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고대 이집트나 히타이트에서 전래된 도릭이나 이오닉 양식의 기둥과 열주형식을 더욱 예술성 높은 걸작품을 만들었던 그리스인의 지혜는 높이 평가해야 한다. 또한 로마도 동방의 아치구조를 활용하여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고 대로마를 건설시킨 열의는 놀랄만한 일이다.

고대의 동방적 요소가 깊숙이 그리스나 로마 건축에 깔려 있으나 중세나 근세에 서로 오고간 흔적을 찾을 길이 없다. 예를 들면 1829년까지 400여년간 오스만의 지배를 받았던 그리스에는 오스만적인 건축물이 남아 있는 것이 없다. 역사적으로 흠이 있는 것은 깨끗이 없애는 유럽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에는 2000년이 넘는 유적은 있으나 2000년전의 유적은 없으며 역사도 없는 것 같이 보인다. 그들은 어두운 역사는 아예 잘라버리기에 역사는 역사가가 만든다는 말이 적중되는 나라인 것이다.

주 : 지금 현지에서 볼수 있는 실크로드느 우리가 관념적으로 익혀진 모습이란 퇴색되거나 사라져 버렸다. 이런 속에 몇 개의 자취와 가닥이 남아 있을 뿐이다. 이러한 가닥들을 스케치에 담아 실크로드-드로잉전을 마련하게 되었다.

· 서울전시 : 예술의 전당 미술관(11.2~11.10)

· 부산전시 : 국제신문 문화센터(11.28~12.3)